



〈선술집의 방탕아〉-1636년경, 캔버스에 유채, 161*131, 드레스덴 국립 미술관 소장

- 빛의 화가 렘브란트 -
박재현 작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처럼 극적인 인생을 산 화가도 드물다. 그는 삶의 전반기에는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삶의 후반기에는 가난과 사람들의 몰이해로 상처만 남았다. 렘브란트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사람이 아내 사스키아다. 그녀가 살았을 때 렘브란트의 인생은 빛으로 그녀의 죽음으로 그의 후반기 인생은 어두운 시기로 넘어간다.

렘브란트는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 고향 레이덴을 떠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다. 암스테르담에서 렘브란트는 재능을 알아본 화상의 도움으로 화가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시골제분소집 아들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렘브란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스키아와 결혼을 하면서 꿈에 그리던 신분상승을 이룬다.

하지만 사스키아는 도시의 중간계급으로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사치스러웠으며 렘브란트도 자신의 명성에 맞게 사치하기를 좋아했다. 두 사람의 사치를 걱정한 사스키아 집에서 렘브란트에게 사스키아가 가지고온 지참금을 다 썼다고 비난했다. 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있었기에 비난을 일축했다.

렘브란트가 지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 맞서 제작한 작품이 〈선술집의 방탕아〉다. 이 작품은 부부의 행복을 표현하고 있다.

선술집에서 사스키아를 무릎에 앉힌 렘브란트는 술잔을 높이 든 들고 있다. 탁자 위에 공작이 놓여 있는데 네덜란드 도덕적 우의에 따르면 공작은 오만함을 나타내고 높이 든 술잔은 호의호식을 상징한다. 렘브란트가 차고 있는 칼도 당시 렘브란트 신분으로서는 찰 수 없는 것이었다.

렘브란트는 신분이 높은 사스키아와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칼과 술잔, 공작을 그려 넣었다. 렘브란트는 모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가가 되었다. 그의 방식을 의뢰인들은 숭배했고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렘브란트 전성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야간 경비대〉다. 이 작품은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제작된 집단 초상화 중에서 가장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야간 경비대〉-1642년, 캔버스에 유채, 363*437,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소장

화면 중앙, 붉은 색 띠 장식이 있는 옷을 입은 프란스 반닝 코크 대장이 왼손을 앞으로 뻗치며 민병대원들에게 전진을 명령하고 있고 옆에 황금색 옷을 입은 빌렘 반 로이텐부르크 부대장이 머리 부분이 넓은 '파티잔'이라는 창날을 들고 행군하고 있다. 창날은 그가 맡은 직무를 상징하고 있으며 어깨 뒤에 보이는 대원이 소총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 화면에 대원이 들고 있는 붉은 행군의 리듬을 나타내며 소총과 창을 장비한 대원들은 행렬을 준비하고 있다.

민병대 깃발 아래 있는 소녀의 허리에는 죽은 암탉이 매달려 있는데 암탉은 민병대의 상징이다. 소녀의 모델은 그해 결핵으로 죽은 렘브란트의 아내 사스키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민병대는 그 당시 남성들의 사교클럽의 역할을 했었다. 성문 뒤로 보이는 방패에는 18명의 민병대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들은 이 집단 초상화에 포함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앞에 선 병사들의 동작 때문에 인물이 반반밖에 보이지 않았던 민병대 사람들은 후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불만을 일으켰다. 당시 민병대원들을 그린 다른 작품들은 등장인물들을 같은 높이 두었으나 렘브란트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비중의 차이를 두었다.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만 인기 화가에 만족하지 않았다. 모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묘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모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고객들은 렘브란트의 새로운 방식의 초상화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주문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요구한 것은 모델의 지위가 나타나는 초상화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자신의 예술적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던 렘브란트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술작품만 그렸다. 그는 작품의 주문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욕구에 충실한 그림만 그린 것이다.

주문이 점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지 못했다. 계속된 낭비 때문에 렘브란트는 파산했고 채권자들은 빚을 받기 위해 그를 법정까지 세운다. 당시 무역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무역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상인의 나라였다. 금융시장과 은행과 상거래가 활발한 암스테르담 사회에서 낭비하는 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그림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그를 비난했다.

주문 초상화를 거의 그리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 한동안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렘브란트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외모가 사스키아와 닮은 유모였던 19살의 헨드리키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헨드리키에와 재혼을 할 수가 없었다. 사스키아가 유언에 렘브란트가 재혼을 하면 유산상속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렘브란트는 헨드리키에는 사실상 살고 있었지만 사스키아의 유산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결혼하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의 추문을 일으켜 교회 재판소에 소환을 받게 된다. 소환에 응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유를 말해야만 했었다. 두 사람은 소환을 거부했지만 1654년 칼뱅교 교회 법원은 헨드리키에만 소환한다. 결국 그녀는 “렘브란트와 간음한 것을 고백하고 엄한 처벌을 받으며 참회하라”는 교회 선고를 받았고 렘브란트는 ‘혐의 없음’ 선고를 받는다.

경매를 통해 모든 재산을 잃은 말년에 렘브란트는 자화상에 더욱 더 심취한다. 100여 차례에 걸쳐 유와와 드로잉과 에칭화로 자화상을 제작한 것이다. 렘브란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다루기 쉬운 모델은 자기 자신이었다.

렘브란트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자화상이다. 그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화가 중에 한 사람이다. 초상화는 꾸준히 작업을 해온 화가의 인생을 말해주는데 렘브란트는 44년이라는 창작활동기간 동안 자신을 모델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입문하던 생애 전반기에서부터 시작한 자화상은 고통이었던 생애 후반기에까지 이어진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시기마다 그렸다거나 모델의 표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화상을 그린 것은 아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자화상들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효과를 주는 기법으로 다양한 개성을 표출한다.

자화상 속의 렘브란트는 귀족, 성경속의 인물,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표현되어 지기도 했다. 역사나 신화를 통해 그는 근심에 찬 모습, 환희에 찬 모습, 상냥한 모습, 자신만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환멸에 찬 모습 등 내면을 스스럼없이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자화상은 렘브란트의 삶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절망 속에서도 화가로서의 자신만의 색채를 버리지 않으면서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을 통해 그가 밝히고 싶었

던 것은 고독이라는 주제였다.

렘브란트는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자신만의 방식만 고집했다. 결국 렘브란트는 파산 선고를 받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를 어린 아들이 집과 빵을 주면서 돌봐야만 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의 예술적 표현 방법은 다양한 변화를 성취했다.

행복과 불행의 극과 극인 인생을 살았던 렘브란트는 작품의 성격 또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 다. 전반기는 부와 명성에 쌓인 화려한 생활이었던 시기의 작품은 혁신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작품이었다면 후반기는 가난과 실의에 시달린 시기로서 이 시기의 색채는 서로 화합하며 빛은 더 가라앉는다.

렘브란트의 예술의 원숙기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생애 마지막까지 이르는 20여 년 동안이다. 이 시기의 색채와 형태가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렘브란트가 인생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인생과 화해를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